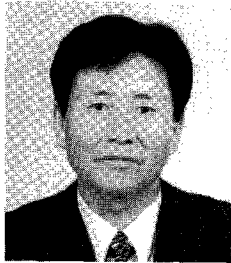


병아리 품질향상 되어야 채란업 어려움 풀린다.



양 기 원
(효리 애계원 대표)

지 금부터라도 한국 채란양계 발전 방향과 세계 경쟁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재정립을 하지 않으면 우리 채란양계 업계의 대부분의 농가가 도태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로겠지만 우리 양계산업도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생각만 해도 눈 앞이 캄캄

하다.

「구조조정」이란 이름아래 사활을 건 강도 높은 경제개혁이 추진중이며 이미 실업자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이 험난한 물결속에 양계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다. 「구조조정」 몇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

1. 병아리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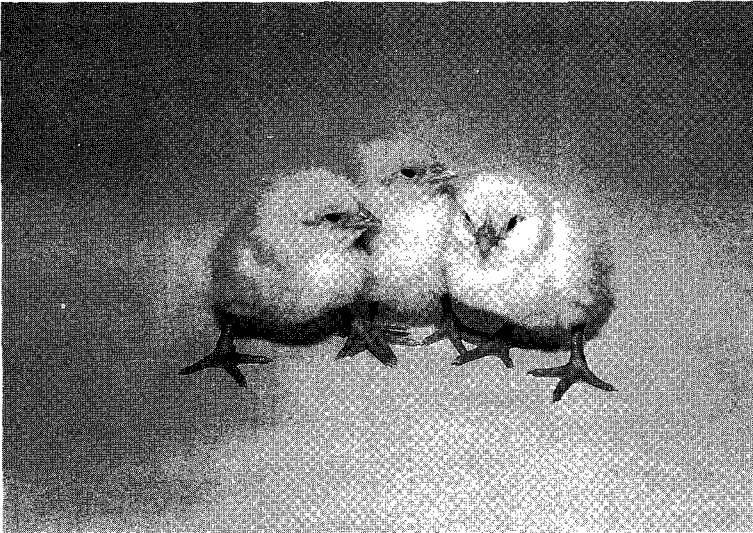
언제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만 질 좋은 병아리가 생산되지 않으면 농장을 경영하는 측은 계속 어려움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

좋은 병아리를 생산하려면 우선 농장과 사료공장이 협력하지 않으면 강건하고 질 좋은 병아리를 절대로 생산할 수 없다.

부화장도 마음놓고 계획생산 할 수 있도록 농장측에서 협력과 신용을 지켜주면서 또 질 좋은 병아리가 생산되도록 강력한 요구를 해야 양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이다.

부화장 책임자도 솔직하게 병아리 한 마리 생산하는데 사료값, 방역비,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생산 코스트를 제시해 주고, 우리 농장측도 부화장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지 않으면 농장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

절대로 병아리 가격에 손질 말고, 적정선의 가격으로 MG, MS가 없는 병아리로, 체중도 대·소 두가지 체중으로 구분하고 부화장의 모든 정보를 개방해서 병아리를 구입하여 잘 육성해서 산란성적을 올릴 수 없는 부화장은 도태가 되는 방향으로 자리가 잡히면, 반드시 부화장도 좋은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리라고



에 영양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우리 농장도 비싼 병아리를 구입하는 요인이 된다.

사료공장도 이론과 정보를 수집하여 좀더 내용이 충실한 배합비를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부화장과 농장이 생산비를 줄일 것으로 본다.

필자의 양계연구회원들은 몇 달전부터 생산성을 높이는 주문사료 즉, 생산데이터를

본다.

그리고 종계사료 가격은 왜 그리 비싼지 모르겠다.

우리 연구회에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해 보면, 산란계 사료와 같은 배합비 사료를 제조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사료공장은 한 번 검증해 보고 사료가격을 좀더 생각해야 우리 농장이 좋은 병아리를 적정선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 연구회는 S부화장을 선정해서 사료도 우리가 쓰는 배합비로 제조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난중 수정이 더 좋아졌다고 한다. 아무튼 서로 협력해서 좋은 병아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부화장, 농장 할 것 없이 다 같이 도산하고 만다.

조금 더 심한 이야기를 하자면 병아리 구입할 때 MG, MS병도 같이 구입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 농장의 실정이다.

그리고 사료공장도 종계사료라는 이름 때문

가지고 배합비를 생각하고 사료가격도 합리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아무튼 부화장, 사료공장, 농장이 서로 신뢰하는 경영을 하지 않으면 다 같이 미래가 없다. 우리 다같이 질 좋은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의 양계 산물을 막을 길이 없다.

2. 사료문제

이제 우리 농장측도 사료에 대하여 연구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배합비 설계를 하여 사용하는 것이 「구조조정」 하는 제일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농장들도 자기 농장의 경영 목표설정도 없이 사료가격만 이야기하니 사료공장도 그 가격에 맞는 사료만 제조할 수 밖에 없다. 적어도 사전에 생산계획과 목표설정을 해서 사료공장에 제시하면 반드시 허실이 없는 사료가 제조된다고 본다.

즉, 연평균 산란율 83%, 일난중 53g, 540일령

**농장과 상인,
 농장과 소비자 이렇게
 삼각관계로 잘 조화를
 이루어 질서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농장, 사료공장, 상인
 다같이 어려운
 과정에서 헤어지지
 못할 것이다.**

산란율 76%, 사료섭취량 110g.

필자의 양계연구회원 10명이 약 2,000t의 물량을 가지고 주문사료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가공료와 사료공장의 이익금을 설정해 놓고 사료공장으로부터 사료원료의 가격정보를 받아 사료배합비는 우리연구회에서 설계하여 사료공장에 주문 사료공장에서 제조만 해 주는데 모든 책임을 우리연구회에서 지고 사후 생산데이터를 가지고 선진국의 생산데이터와 비교분석하면서 영양수치의 평가를 하고 또 자기 농장 위치가 어느선에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다.

우리 양계연구회원들은 미국의 5,000만수의 생산데이터를 일년에 4회 받아 오는데 160,000원을 지불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회원들은 일주일 배합비 또 오전 사료, 오후사료 배합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점이라고 생각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다.

3. 농장의 사양관리문제

한국의 양계산업도 많이 발전했다.

1) 부업양계에서, 2) 농가양계, 3) 전업양계, 4) 전문양계, 5) 기업양계 다섯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참으로 놀라운 발전을 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 축산농가도 합리적인 생각과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지 않으면 선진국의 축산물에 밀려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경영을 하지 않으면 도태의 대열에서 벗어날 수 없다.

4. 식품의 안전성문제

앞으로 살모넬라 문제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당할 것이며, 저공해, 토지이용을 문제도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5. 노동효율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시점에 있다. 신문지상으로 실업자가 150만명이나 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양계산업도 불과 5, 6년 사이에 최첨단의 기계시설을 설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노동질이 낮아 노동효율은 형편없이 떨어져 경영자는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지만, 고급두뇌들은 양계장에 아예 취업을 생각도 하지 않는 실정이다.

노동질이 낮고 자동화 개념도 모르는 상태

에서 작업하다 보니 하루에도 몇번이고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농장들의 현실이다.

6. 생산성적

생산성적을 올리는 것은 종합적인 예술이다. 이것은 부화장기술, 사료공장기술, 농장의 사양관리기술 이런 기술이 종합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절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

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생산된 상품이라 하더라도 깨끗하고 위생적인 즉, 상품가치가 높은 계란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유통문제

한국의 계란 유통은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다.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외국의 유통업체에 불식당하고 말 것이다.

유통문제는 몇 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다. 이 유통문제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고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양계 발전은 힘들 것이다.

농장과 상인, 농장과 소비자 이렇게 삼각관계로 잘 조화를 이루어 질서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농장, 사료공장, 상인 다같이 어려운 과정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유통문제만은 대한양계협회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 도덕성을 가지고 질서있는 유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농장과 상인은 다같이 어려운 시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스템 구성원은 농림부, 국세청, 양계협회, 축협, 농장, 상인 대표들로 구성해서 외국선진

국들 유통방법, 국내외 경제환경여건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연구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농장을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더 이상 양계산업의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3년이란 기간을 설정해 놓고 몇가지 안을 놓고 일차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본다. 유통의 구조조정이 없는한 양계농가의 발전은 생각도 할 수 없다.

8. 질병문제

질병문제만 생각하면 양계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 문제도 몇번 건의한 바 있지만 양계협회에서 농림부에 잘 건의하여 각 도별로 질병연구소가 있지만 능력이 있는 농장을 각 도별로 2개이상 선정하여 질병 연구실을 신설해서 질병연구소와 매월 2회 이상 연구결과 보고회를 하면서 질병의 흐름을 파악하고 멸종시키는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하는 것이 양계산업 발전을 앞당기는 거름이 될 것이다.

앞으로 2년반만 있으면 21세기를 맞이하게 된다.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오리라 본다. 계란도 선진국형 상품개발을 하여 우리 양계산업도 하나의 전환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양계**

